

내수부진 여파 속… 조선·방산 ‘호조’, 전자·반도체 ‘위축’

업종별 2분기 실적 온도차 뚜렷
삼성, 반도체 부진 영업익 55% ↓
LG, TV 사업 부진에 전체 매출 감소
HD현대, 조선·방산 호조 성과 개선

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의 여파 속에서 주요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업종별로 뚜렷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방산과 조선 업종은 호실적을 기록한 반면, 전자 업종 등은 부진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4조 5663억원, 영업이익 4조 67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6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55.23% 하락했다. 반도체 부문 부진이 실적 감소를 이끌었으며,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은 4000억원으로 시장 전망치 1조원을 크게 밑돌았다.

LG전자는 2분기 매출 20조 7352억원, 영업이익 639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4.4%와 46.6% 감소했다. 사업부별로 보면, 생활가전(HS사업본부), 전장(HS사업본부), 냉난방공조(ES사업본부) 부문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TV 사업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삼성전기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 2조 7846억원, 영업이익 213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 1%



LG에너지솔루션의 미시간 법인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증가했다. 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 2%, 영업이익 16% 늘었다. 3분기는 국내외 거래선의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로 IT용 부품 및 AI 서버·네트워크,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산업·전장용 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는 2분기 매출 17조 2111억원, 영업이익 1조 138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29.4% 증가했다. 이는 조선 부문에서 수익성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고, 방산 부문도 수출 증가와 신규 수주 확보로 성장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3% 증가한 7조 4284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53.3% 증가한 9536억원을 달성하며 HD현대 실적에 큰 기여를 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7조 5560억원, 영업이익 6070억원, 순이익 840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0.68%, 영업이익은 6.87% 증가하며 실적이 개선됐다. 국내외 철강수요 부진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경제적 불확실성 고조 및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철강사업은 국내 및 해외 철강사업 모두 판매량 확대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별도기준 영업이익률이 5.7%를 기록해 202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방산부문 실적 호조와 한화오션의 안정적인 실적에 힘입어 급성장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매출 6조 2735억원, 영업이익 8644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은 전년 대비 168.7%, 영업

이익은 156.3% 증가했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과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이다.

이차전지업종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매출 5조 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9.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52% 증가했다.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 C) 금액이 주요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SK온은 2분기 매출 2조 1077억원, 영업손실 664억원을 기록했다. 북미 배터리 출하량 증가에도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으나, 통합 법인으로는 첫 분기 흑자 609억원을 달성했다.

반면 삼성SDI는 2025년 2분기에 매출 3조 1794억원, 영업손실 397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ESS(에너지저장장치) 및 BBU(배터리백업유닛)용 매출이 증가했으나 주요 고객의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으로 전분기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관세로 인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하반기에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이안나 연구원은 “반도체와 조선업, 이차전지 분야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현지화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유럽시장 친환경 변압기 공급 가속화

HD현대일렉트릭
영국 ‘내셔널그리드’와 공급 협약
400kV급 12대 등 총 13대 계약

HD현대일렉트릭이 영국 전력회사와 친환경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유럽의 친환경 변압기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영국 전력회사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와 400킬로볼트(kV) 급 12대

와 275킬로볼트(kV) 급 1대 등 총 13대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계약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1404억원으로 최종 인도 시점은 오는 2028년이다.

이번에 수주한 변압기 중 11대는 친환경 변압기다. 친환경 변압기는 절연유를 기존 원유 기반 광유(Mineral Oil) 대신 자연 분해되는 식물유 기반의 합성유(Synthetic Ester Oil)로 대체한 제품이다. 또한 화재 위험도 낮아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도심지역, 민

감한 산업 시설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친환경 수요가 커지는 만큼 제품의 가격도 높게 형성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동일 사양의 친환경 변압기를 미국 등에서 수주하며 품질과 기술력을 입증받아 왔다.

이번 수주는 지난 5월 스코틀랜드 전력회사와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에 이은 것으로, 두 달 만에 추가 수주에 성공하며 영국 변압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영국은 오는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완전한 탈탄소화를 목표로 해상풍력과 태양광, 원전의 발전용량을 각각 50기가와트, 70기가와트, 24기가와트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 설비의 교체 및 증설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영국은 전력 설비의 주요 수요처로 손꼽히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미국 등에서 축적한 합성유 변압기 공급 경험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친환경 제품의 유럽 시장 공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바닥재, 중문, 벽장재까지 한 자리에”

LX하우시스·한샘·현대리바트
‘2025 코리아빌위크’ 참가

LX하우시스와 한샘, 현대리바트가 8월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건축박람회 ‘2025 코리아빌위크’에 참가,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선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X하우시스는 창호·중문·바닥재·벽장재·키친등인기 제품으로 구성된 모델하우스 공간 및 팻테리어 테마존, 20여개 상담부스 등 대규모 전시관을 마련했다.

또 방문객들이 바닥재, 벽지, 인테리어필름 등 다양한 제품 샘플을 조합해보

며 나만의 인테리어 공간을 꾸밀 수 있는 ‘마감재 매칭 테이블’도 준비했다.

상담부스에선 수도권 지역 LX하우시스 지인스퀘어 전시장 소속 대리점의 인테리어 전문가 40여명이 상주하며 1대1 상담을 통해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인테리어를 추천해 준다.

LX하우시스는 이번 코리아빌드위크 기간 동안 전시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 추가 사은품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진공·소진공, 中企소상공인 추가 지원

온라인수출플랫폼 참여社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31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중진공은 이날부터 오는 8월18일까지 ‘2025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수출 플랫폼(B2B)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B2B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온라인 B2B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이다. 서류평가를 통해 총 60개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내 제품 입점 ▲기업 미니 사이트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 ▲제품 홍보영상 제작 ▲구매오퍼 사후관리 및 수출계약 지원 등 온라인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중 20개사 내외의 우수기업은 ‘고비즈 인증기업’으로 선정돼 인증마크 부여, 전용 특별관 입점 등 차별화된 마케팅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한화오션

협력사 체질개선 지원

‘TOP 상생협력’ 가동

한화오션이 자사의 운영 혁신 활동인 TOP(Total Operational Performance) 대상을 협력사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TOP는 한화오션이 지난 2023년부터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활동이다.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과 실행을 통해 공정 효율화·품질 향상 등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한화오션은 TOP활동으로 현재 1000여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운영하면서 성과를 거두자 이를 협력사까지 확대기로 했다. 1차 대상 협력사는 대림S&P, 동화엔텍, 삼녹, 영창목재산업 등이다.

한화오션은 홀로 성장하는 방식으로는 중국과의 가격 및 기술 경쟁 등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협력사에 대한 TOP 상생협력을 결정했다.

이번 TOP 상생협력은 협력사 현장의 체질 개선과 운영 시스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각 협력사가 효율성과 품질, 납기 대응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TOP 상생협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협력사의 역량이 곧 한화오션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추진되는 전략적 동반성장 모델”이라고 했다.

/이승용 기자

SK일렉트릭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용인시 노상 주차장 등 설치 예정

전기차 충전업계를 선도하는 SK일렉트릭가 용인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며 지역 내 친환경 인프라 확산에 나선다.

SK일렉트릭은 용인시의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공동참여 민간충전사업자 모집’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용인시가 기업 신용도, 충전 서비스 운영 실적, 충전기 사양, 운영·관리 체계, 고객지원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로써 SK일렉트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용인시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SK일렉트릭은 공영 및 노상주차장 총 11개소에 급속 충전기 11기와 완속 충전기 6기를 구축기로 했다. 장기주차에 예상되는 공영주차장에는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신속한 충전이 필요한 곳에는 최대 200kwh급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서울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자로도 선정된 바 있는 SK일렉트릭은 이번 용인시 사업까지 담당하게 되며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보유 인프라 및 서비스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승용 기자